지상백고좌

김제 금산사 조실 금산 도영 대종사

“보살의 삶 서원… 中道적 삶 살아가야”

12면에 이어

理事를 같이 공부했던 날들

길지 않은 말씀 속에서 스님의 깊은 법향(法香)이 느껴졌다. 도영 스님은 이(理)와 사(事)를 겸비하고 있는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다. 스님의 이사무애(理事無礙)한 삶은 65년 수행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스님은 스승들을 잘 만난 덕분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산사로 출가했습니다. 백양사로 먼저 출가한 집안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당시 주지가 은사이신 월주 큰스님이십니다. 은사스님은 종단 일을 하시느라 절에 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숙스님들과 주로 같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숙스님들이 금오 노스님의 상좌가 되길 바라셨지만 결국 월주 큰스님을 은사로 모셨습니다. 은사스님은 젊으셨을 때부터 항상 ‘사회 속의 불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바세계에서 보현행원을 실천하시며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꽃을 지구촌에 활짝 피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영 스님은 월주 큰스님께서 생전에 강조하셨던 말씀들을 소개했다.

‘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한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兎角)’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歸一心源 饒益衆生)’

소개를 마친 도영 스님은 “우리 문도들은 항상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월주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영 스님은 수행에도 진력했다. 노스님인 금오 스님의 선수행 정신을 밑거름으로 경봉 스님과 혜암 스님 등의 지도를 받으며 정진했다.

“정화의 주역이신 금오 노스님은 수행에도 철저하셨어요. 호랑이 같은 어른이셨습니다. 노스님께 시심마(是甚麽) 화두를 받았지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줄곧 금산사 살림을 살피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 지나 1970년대 중반 해인사 선원에 방부를 들였습니다. 성철 스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계셔서 공부할 맛이 났습니다. 당시 해인총림 유나로 계시던 혜암 스님께 공부를 다시 배웠습니다. 사판으로만 살다가 선원에 가니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스님께서 무(無)자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화두를 잘 참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내려놓음’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신심명〉의 ‘지도무난유혐간택(至道無難有嫌揀擇)’ 말씀처럼 도(道)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다만 분별심 때문에 도를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도영 스님은 해인사에서의 정진 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다.

“경봉 스님께서 ‘사바세계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며 공부와 정진을 독려해 주셨습니다. 수좌로서 의미있는 삶을 살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공부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김천 수도암선원, 인제 백담사 무문관에서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역시 수행자들은 공부를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영 대종사가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금생에는 보살의 삶을 살겠다” 다짐해
보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주변 진실히 챙기는 보살행 서원하자”

도영 스님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포교와 전법에도 뛰어들었다. 월주 스님을 대신해 사실상 금산사를 지켰다. 특히 1974년 금산사 총무 소임을 보며 인근 지역 군법당 불사와 군포교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고 했습니다. 천 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35사단, 논산 연무대, 부사관학교, 7공수, 임실 탄약창 법당 등을 건립했고 또 법회에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보통 군에 입대하는 아이들이 대학교 1, 2학년을 마치고 와요. 최근 들어 종단이 대학생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군포교도 중요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또 사회에 나와서도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교원장을 할 때 군종특별교구도 만들었습니다. 군포교는 ‘젊은 불교, 남성 불교, 새로운 불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군법당에 가면 우리 장병들에게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주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당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인공의 삶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영 스님은 군포교를 비롯한 다양한 전법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시를 했다. 스님은 “써야 내 돈이다. 쓰지 않으면 남의 돈이다. 좋은 곳에 쓰면 더 좋은 내 돈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스님은 군포교와 함께 전북불교회관 건립과 백산장학재단 설립 등 각계각층 포교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있다. 스님은 특히 장학재단을 통한 포교에 애정이 간다고 했다.

“1980년 금산사 주지 재임시절 한 불자가 지역 내 어려운 학생들을 절에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학생들을 지원해 불교인재로 키워보자고 말입니다. 포교원장 소임을 회향하고 2007년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한 뒤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2010년에 재단을 만든 것은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진실된 보살의 삶 필요

도영 스님의 수행과 포교 원력은 대단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대중들을 만나는 힘이 느껴졌다. 스님은 평소 마음에 담고 있는 게송이라며 직접 글씨를 써 줬다.

‘어젯밤 꿈속에는 머리 머리마다 부처이더니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보니 물건마다 보살이로다. 멀리 창밖을 바라보니 곳곳마다 주인이 되니 봄은 풀잎 따라오고 생각마다 모두 하나로다.(昨夜夢中頭頭佛 今朝開眼物物薩 遠看窓外處處主 春來草葉念念一)’

“금생에는 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中道)’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실천하는 ‘중도’말입니다. 넘치지 않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부터 진실하게 챙기는 보살의 삶을 서원합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영 스님은 보살의 삶을 위해 〈화엄경〉을 통한 수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화엄경〉은 보살의 수행계위로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 순으로 52위를 설하고 있다.

“십지(十地)에서 지(地)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갖추고 있는 근본이며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환희지(歡喜地), 이구지(離垢地), 발광지(發光地), 염혜지(焰慧地), 난승지(難勝地), 현전지(現前地), 원행지(遠行地), 부동지(不動地), 선혜지(善慧地), 법운지(法雲地) 등 십지의 뜻을 알고 정진하면 더 행복한 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영 스님은 몇 년 전 크게 아픈 적이 있다. 실제로 당시 제자들은 스님의 열반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도 고비를 잘 넘기니 이렇게 건강하게 사나 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본무생사(本無生死)입니다. 본래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을 더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저를 ‘본무스님’이라고 불러 주세요.”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인터뷰는 이른 아침부터 점심 공양 목탁이 울릴 때까지 계속됐다. 송광사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야채들이 공양간을 장엄하고 있었다. 공양이 끝나고 모든 대중들과 인사를 나누는 스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도영 스님에게 혹시 못다 한 말씀이 없는지 여쭈자 2020년 5월 15일 송광사에서 열린 ‘사법호유게(賜法號遺偈) 법회’에서 내린 게송을 전해줬다.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제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린 게송이지만 모든 사부대중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었다.

守護慈忍以爲精進行本門
堅持佛戒心得淸淨菩提果
和合僧衆自他爲宗門活計
隨機演暢傳法度生廣度衆

너그럽게 참는 마음으로 정진의 근본을 삼을 것이며,
계행을 굳게 가져 청정한 보리과를 이루도록 하라.
승가 대중들은 화합하여 종문이 융성할 방책으로 삼고,
근기에 따라 연설하여 불법을 전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하라.

유철주 / 작가

대한민국 최대 관음응신상

-관음보살님의 신통한 위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소서-

40여년간 불교미술조각에 외길을 걸어온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김승엽 소장은 권정학 선생의 문하생으로 생의 마지막 결과물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33관음상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상경력

1987 정통불교미술대전 ‘장려상’ (동국대 주최)
1989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조계종 주최)
1991 대한민국불교미술재전 ‘가작’ (조계종 주최)
2008 신라미술대전(조소부문) ‘입선’ (한국미술협회 주최)
2009 제5회 국제종합예술재전 ‘대상’ (한서미술협회 주최)

일체중생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하심과 가피를 입고 살아가며 중생은 그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33관음응신상 조성의 후원을 통해 가내에 큰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709-1692-11 성수진 사무국장
연 락 처 |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소장 김승엽 010-6262-5840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